
그리피스 존 『德慧入門』의 판본 변화

이고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서신혜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 I. 머리말
- II. 초간본 『德慧入門』(1879) 저간의 상황
- III. 1882년 수정판: 장의 추가와 天體 내용 보강
- IV. 1887년 수정판: 성경 내용 보강과 문구 수정 본격화
- V. 이후 판본: 신명 종류별 다양한 출간
- VI. 맺음말

국문요약

『德慧入門』은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楊格非, 1831~1912)이 유교 배경을 가진 독자를 대상으로 저술한 개신교계 서학서 중 하나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많이 유통되고 활용된 책으로, 초기 개신교회사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간 이 책에 관해 몇몇 연구가 진행됐지만 서적 연구에서 가장 우선되는 판본 연구가 아직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역본 간 차이에 대한 서지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德慧入門』은 1879년 초간된 이래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재발행되었고, 따라서 초간본과 이후 판본 간의 내용 차이가 상당하다. 초간본에서는 17장이던 것을, 1882년본에서는 한 장을 추가하여 18장으로 구성하였고 우주만물에 대해 설명한 장을 대폭 추가하였다. 1887년본에서는 신명을 ‘眞神-聖靈’으로 하였으며 성경에 대해 설명한 장의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다. 이후에도 매우 자주 많은 판본이 인쇄되어 활용되었다. 내용에서는 1887년판의 것과 동일하지만 신명에서는 상제, 신, 진신, 천주 등으로 다양하게 하여 어느 선교회, 어느 교단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을 통해 『德慧入門』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그리피스 존의 사상과 그의 책들을 살피는 선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책의 한국어 역본 연구에서도 참고거리가 될 것이다.

주제어 덕혜입문, 그리피스 존, 서학서, 전도문서, 한구성교서국, 미화서관

투고일자 2022년 8월 31일 심사일자 2022년 10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0월 17일
<https://doi.org/10.25024/jsjg.2022.48.230>

I. 머리말

『덕혜입문』은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楊格非, 1831~1912)이 유교 배경을 가진 독자를 대상으로 저술한 개신교계 서학서 중 하나이다. 19세기에 발행된 한문 서학서는 그 종류가 무수하지만, 그중 『덕혜입문』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많이 유통되고 활용된 책으로, 초기 개신교회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이다. 중국에서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충무를 지냈던 켄뮤어(Alexander Kenmure, 1856~1910)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발행된 수많은 전도문서 중 그 영향력 면에서 4위를 차지¹⁾할 정도였다. 현재 국내에도 다양한 한문본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1887년본 소장)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재)현담문고에서 1897년본을, 장신대학교, 한양대학교, (사)한국기독교교회사연구소에서 각각 1907년본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어 역본도 다양한데, 가장 먼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²⁾의 주도로 번역되어 1893년에 일부 장이 소책자로 나뉘어 발행되었다. 이후 조선 예수교서회에서 1915년에 전체 번역본을 발행했고, 1927년에는 『천로역정』의 번역자로 잘 알려진 선교사 게일이 개정판 판본을 발행했다.

그간 이 책에 관해 몇몇 연구가 진행됐다. 옥성득이 이 책을 소개²⁾한 이래 이고은, 박혜미, 오주철의 연구로 저자와 이 책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³⁾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 책의 국역본에 담긴 한자음에 대한 연구까지⁴⁾ 이어졌다. 이를 통하여 이 책의 존재가 알려졌고, 최근에는 초간본의 현대역이 출간되어 누구나 이 책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⁵⁾ 하지만 서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판본

1) Alexander Kenmure, "The Ten Best Christian Books in China," *The Chinese Recorder*, July 1893. 이 기록에 의하면 1위 천도소원, 2위 장원양우상론, 3위 천로역정이었다.

2) Sungdeuk Oak, "Chinese Protestant Literature and Early Korean Protestantism," Robert E. Buswell and Timothy S. Lee eds., *Christianity i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pp.80-84;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새물결플러스, 2020, 575-579쪽.

3) 이고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IV장;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덕혜입문(德慧入門)』(1915)』,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 한국기독교문화연구, 2020; 오주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문서로 소개된 『덕혜입문(德慧入門)』에 나타난 교리사적 연구』, 『동서신학』 3권 1호, 동서신학연구소, 2021.

4) 임다영, 『《스민필지》와 《덕혜입문》의 한자음 표기 연구』, 『국어학』 102, 국어학회, 2022, 123-155쪽.

5) 그리피스 존 저, 김현우·서신혜·이고은 역, 『덕혜입문』, 동서지행포럼, 2022.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덕혜입문』은 1879년 초판된 이래 중화민국 설립 이후인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재발행되었고, 초간본과 이후 판본 간의 내용 차이가 상당히 있는 서학서이다. 판본 양상이 밝혀져야 기준으로 삼을 선본이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그 책에 담긴 내용과 사상 등에 대해 명확히 살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책의 역본간 차이에 대한 서지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먼저 『덕혜입문』의 초간본이 발행된 경위를 고찰하고, 이후 판본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활용되었다가 확정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가 수행되고 나면 이후 『덕혜입문』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19세기 중국의 서학서 저술 및 발행의 배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리피스 존의 사상과 그의 책들을 살피는 선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책의 한국어 역본 연구에서도 참고거리가 될 것이다.

II. 초간본 『德慧入門』(1879) 저간의 상황

그리피스 존은 선교사 중에서 특히 다양한 책들을 여럿 발간하여 문서선교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유명하다. 1875년 한구 및 무창 지역의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함께 漢口聖敎書局⁶⁾을 창립하고 다수의 소책자를 저술하였다.

그리피스 존은 1879년 9월 무창에서 열릴 科學에서 배포할 생각으로 이 책을 저작하였다.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일 것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책을 팔거나 나누어주며 전도를 한다면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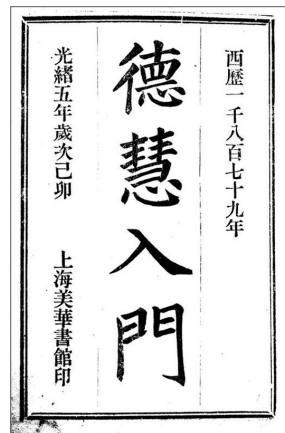


그림 1 초간본 덕혜입문 표지

6) 이듬해 1876년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聖敎書會'와 인쇄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聖敎書局'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성교서국으로 불렸다. 오주철, 앞의 논문, 56쪽 각주 18 계인용.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덕혜입문』에 담긴 질문과 설명의 내용, 유가적 경전체라는 문체는 과거 시험을 위해 모일 중국 문인층에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⁷⁾

내용 서술에서도 중심 독자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국의 유가경서들을 논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제목의 '德慧'부터 『孟子』 「盡心」에 나오는 용어이며,⁸⁾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1~2장 대목에서 張橫渠의 『西銘』, 朱子の 『近思錄』, 周濂溪의 『太極圖說』 등 성리학자들의 서적을 인용하였으며, 『論語』나 『中庸』 등의 사서에서 인용한 내용도 다수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피스 존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동료 선교사들의 저술을 인용하였다. 예컨대 1~5장의 내용은 윌리엄 마틴(W.A.P. Martin, 1827~1916)의 『天道溯原』(Evidence of Christianity, 1854) 앞부분과 윌리엄슨의 『自然神學』 일부를 가져와 서술했다.⁹⁾

책의 구성을 보자면, 1879년 초간본은 「만물의 근본을 총체적으로 논하다(總論萬物之本原)」부터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다(勸衆悔改)」까지 총 1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와 목차 이외에 총 31장(a, b면)이고, 각 장은 31글자×12행이다.

초간본의 특이한 점은 이 책을 출간한 곳이다. 그리피스 존은 「서」 마지막 단락에서 '기묘년(1879) 4월 이 책을 한진에서 완성하였다(己卯首夏, 成是書於漢鎮)'라 썼다. 한진이란 漢口라 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중국 호남성 武昌과 漢陽을 합하여 武漢으로 행정구역을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이 「서」에서 책의 저술을 '한진'에서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나, 막상 현재 남아 있는 1879년 초간본에는 '上海美華書館印'이라고 표시되어 있다.¹⁰⁾ 1878년부터 한구서국은 모든 발행물을 자체 인쇄하고 있었고¹¹⁾ 초간본 발행 시기인 1879년 당시 그리피스 존은 이미 이 한구서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초간본이 한구에서 발간되어야 할 듯하지만, 현재까지 한구 발행본은 보지 못하였다. 초간본 이후 판본에서는 印發과 印을 구별하여 둘 다 표시했던 것을 고려하면(Ⅲ장 표 2 참고), 초간본의 발행 주체는 한구서국이지만 인쇄만 상해미화서관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John Lai, *Negotiating Religious Gaps: The Enterprise of Translating Christian Tracts by Protestant Missionaries in Nineteenth-Century China*, Routledge, 2012, p.48.

8) 『孟子』, 「盡心上」, “人之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疢疾, 獨孤臣孽子, 其操心也危, 其慮患也深, 故達.”

9) 옥성득, 앞의 책, 577쪽.

10) 이것은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안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1) 한구서회에서 영국의 모회(RTS)에 제출한 1878년 사업보고서에 “Our tracts this year have all been printed by a native printer in Hankow.”라고 하였다. *The Annual Report of the Religious Tract Society*,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9, p.176.

그렇게 추정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덕혜입문』은 일반적인 전도용 소책자들과 달리 18장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었다. 따라서 인쇄와 제본 모든 면에서 한구서국보다 설비가 잘 갖추어진 상해미화서관을 이용하는 편이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미화서관은 중국 기독교 출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성교서회와 성서공회, 광학회 등 기독교 출판사들의 인쇄소 역할뿐 아니라 보관 및 우편배송 업무도 총괄하였고, 미화서관 서목(Catalogue)을 발행하여 서고에 있는 책을 중국 전역에 홍보 및 판촉하였다. 따라서 미화서관을 인쇄소로 활용하면 출간과 동시에 중국 전역에 이 책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덕혜입문』은 영국 런던 성교서회(Religious Tract Society, 이하 RTS)¹²⁾의 특별기금으로 제작된 서학서였다. 그리피스 존은 3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이 1879년에 무창에서 열릴 것을 알고, 이를 특별한 전도의 기회로 보아 전국에서 몰려올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덕혜입문』을 저술하면서 이를 출판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母會인 RTS에 신청했던 것이다. 당시 설립된 지 3년 남짓했던 한구서회에서 이 책의 저술과 배포를 기획한 것은 큰 사건이었다. 이 대범한 계획을 영국의 런던 성교서회에서 수용하여 30파운드를 후원하였고, 시험 당일에 10,000부를 무료로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¹³⁾ 당시 런던 성교서회에서 한구서회에 보내던 연간후원금이 50파운드였는데, 이 금액 외에 『덕혜입문』을 위해 별도로 30파운드를 보내주었으니 이 책에 특별히 힘을 실었던 것이다. 이 정도 지원이 있었기에 상해에서 책을 인쇄하고, 이를 다시 한구로 받아 무창에서 배포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만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책의 배포를 담당했던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은 책의 내용에 대해 유생들이 반발하거나 보수적인 內地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중국인들이 작은 소요를 일으킨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화롭게 수용되었으며, 특히 책을 받아들던 유생들의 공손한 태도는 선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있다.¹⁴⁾ 선교사들의 우려와 예상을 뛰어넘어 이 책은 중국 전 지역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선전을 거두었고, 이후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판본

12) 1799년 런던에 설립된 기독교 출판기관. 영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벌이던 출판사업을 후원했다. 각지에 설립된 서회들은 영국 모회의 조직과 규정을 본떠 운영되었으며, 영국의 모회는 재정후원과 더불어 인쇄를 위한 물품과 기술을 지원했다. 이고은, 앞의 논문 참고.

13) J.W. Brewer, "Hankow Tract Society," *Chinese Recorder*, vol.11, no.4, 1880, p.305.

14) J.W. Brewer, 위의 논문, pp.306-307.

들이 발행되었던 것이다.

Ⅲ. 1882년 수정판: 장의 추가와 天體 내용 보강

그리피스 존은 초간 발행 후 3년만인 1882년에 이 책에 대한 수정판을 낸다. 이때는 漢鎮聖敎書局에서 발행한다.¹⁵⁾ 1882년본이 초간본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총 17장이었던 초간본에 「다시 사는 이치(復生之道)」를 13번째 장으로 추가함으로써 총 18장 구성으로 변하였다는 점이다(표 1 참고). 초간본에서는 순서상 10장에서 「속죄의 방법(贖罪之法)」을 말하고 이어 11장 「거듭남의 길(重生之道)」을 설명한 후 12장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信者得救)」고 설명한다. 이후부터는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장으로 이어진다. 내용으로 보면, 예수의 대속을 믿어 속죄 되고(10장), 성령의 감화로 새사람이 되어(11장), 하나님을 믿고 그 법에 따라 평생 살아 천국에 간다(12장)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수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즉 13번째 장으로 「거듭남의 길」을 두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 심판 받게 됨을 설명하였다. 그것까지 설명해야 교리가 온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판본 기준 13~17장이 한 장씩 밀려 14~18장으로 제시된다. 이후 모든 판본은 이 순서를 따랐으므로, 본고에서 장의 순서를 표시할 때는 1882년판본의 순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덕혜입문』 1882년본 목차

1장	만물의 근본을 총체적으로 논하다(總論萬物之本原)
2장	만물 근원에 대한 오류 변증(辨萬物本原之謬)
3장	만물의 원소를 대략 논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다(略論萬物之原質以彰上帝之經綸)

15) 이 책은 호주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누구나 전체를 pdf로 확인할 수 있다.

4장	하늘과 땅의 대국을 총체적으로 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다(總論天地之大局以見上帝之尊榮)
5장	만물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萬物各得其宜以顯上帝之仁愛)
6장	하나님은 유일하시다(上帝惟一)
7장	하나님의 호칭(上帝之稱)
8장	하나님의 몸(上帝之體)
9장	예수는 참 구세주이다(耶穌爲救世眞主)
10장	속죄의 방법(贖罪之法)
11장	거듭남의 길(重生之道)
12장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信者得救)
13장	다시 사는 이치(復生之道) ※1882년본 이후 추가된 내용
14장	성경의 요지를 설명하다(論聖經大旨)
15장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본분을 대략 논하다(略論聖經教人之本分)
16장	믿는 자가 늘 지켜야 할 법규와 금지하는 일(奉教者常守之規及禁行之事)
17장	믿는 자가 얻는 참복(信者所得之眞福)
18장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다(勸衆悔改)

둘째, 초간본 4장 「하늘과 땅의 대국을 총체적으로 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다(總論天地之大局以見上帝之尊榮)」의 내용이 1882년본에서 대폭 보장되었다. 첫머리에서부터 한 단락을 추가하여, 기존 중국인들의 天圓地方 개념을 실질적 근거가 없는 반면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천리경으로 관찰 및 계산하는 등 실질적 증거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해당 부분을 번역하여 아래 인용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커다란 땅이 가운데 있으면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일월성신은 그 밖을 두르고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옛사람이 (자기) 좁은 소견을 옳다 여기며 억측으로 단정 짓는 것을 능사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거는 없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천문학자[天文家]들이 천문을 살피되 매우 정밀한 천리경을 이용하여 밤낮으로 살피고 계산한다. 또 각 나라에 있는 점성가[星士]가 서로 고증하여 실제로 근거할 만함이 있다. 그러니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살피며, 멋대로 생각하여 망령되이 말하지 않는다. 천지의 대체적 판국은 사람이 모두 마땅히 간략히라도 알아야 하는 것이라서 요점을 뽑아 지식이 부족한 내가[淺近者] 말

하니, 청컨대 이 편을 읽는 사람은 세심하게 살핀다면 절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답천』, 『박물신편』, 『격물담원』 등의 여러 책을 곁하여 본다면 천지의 대체적 판국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고 또 남김없이 알게 될 것이다.¹⁶⁾

위와 같은 선언을 한 후에 저자는 자신이 언급한 실질적 증거의 예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의 모양과 크기의 실측¹⁷⁾을 추가하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는 다른 행성들을 태양으로부터 거리순으로 나열하는 부분¹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초간본에서는 각 행성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할 때 목성과 토성의 예만 들었지만, 1882년본에는 해왕성과 천왕성의 크기를 지구와 비교하는 내용¹⁹⁾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해와 달, 일식과 월식, 혜성, 유성, 항성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일일이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밖에 글자 수준의 수정이 있으나, 이는 군데군데 오자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글자나 구절 사이의 수정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IV. 1887년 수정판: 성경 내용 보강과 문구 수정 본격화

1887년에 새로 수정판이 나왔다. 이 책 표지에는 上海美華書館鉛板을 中國聖教書會에서 간행한다고 쓰여 있다.²⁰⁾ 상해의 중국성교서회는 미국장로회 파송 선교사 파넘(Rev. John Marshal Willoughby Farnham, 范約翰, 1825~1918)의 주도로 설립

16) 楊格非, 『德慧入門』, 漢鎮聖教書局, 1882, “古人云, 天圓地方, 大地在中, 靜而不動, 日月星辰, 繞於其外. 然古人以管窺爲是, 臆斷爲能, 未有實據. 今也不然, 天文家講天文, 乃用極精千里鏡, 夜觀日算, 更有各國星士, 互相考證, 實有可據, 乃卽物以察理, 非逞臆而妄談也. 天地之大局, 人皆宜略知, 因擇要而淺近者言之, 請閱是篇者, 細心考究, 自有所識, 並請衆看談天, 博物新編, 格物探原諸書, 則於天地之大局, 爲更詳而且悉矣.”

17) 楊格非, 위의 책, “地球之爲物非小, [이하 1882년본에 추가된 내용] 其直徑有二萬七千六百餘里, 其周圍有八萬餘里, 統地面以方里計之, 有二十四萬一千餘萬, 設有人周行地面, 一時中行二十里, 須一年方能轉回原處.”

18) 楊格非, 앞의 책, “諸行星之最近日者乃水聖, 次金星, 次地球, 次火星, 次諸小行星, 次木星, 次土星, 次天王星, 次海王星…”

19) 楊格非, 앞의 책, “海王星大九十餘倍, 天王星, 大七十餘倍.”

20) 이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된 개신교 출판사인데,²¹⁾ 이 책을 중국성교서회에서 재발행한 의미는 아래에 서술하겠다.

1887년본의 유의미한 변화는 크게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887년에서 바뀐 핵심 내용은 용어의 변경에 있다. 초간본과 1882년본에서 上帝라 썼던 것을 1887년본에서는 대부분 眞神으로 수정하였다. 장의 제목부터 그렇게 수정한 것이 잘 드러난다. 초간과 1882년본 6~8장의 제목이 각각 「上帝惟一」, 「上帝之稱」, 「上帝之體」라고 되어 있었는데, 1887년본에서는 「眞神惟一」, 「眞神之稱」, 「眞神之體」로 수정되어 있다. 또 이전 본에서 神으로 쓴 것을 靈으로 수정하였다. 그래서 聖神이 聖靈으로 표현된다.

이를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5장 「만물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萬物各得其宜以顯上帝之仁愛)」의 끝부분을 초간본에서는 “그러나 사람에게 비록 죄가 있어도 上帝의 사랑이 더욱 드러났다. 곧 성자 예수를 降生시켜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贖하시고, 또 聖神을 내려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양심을 다시 살리게 하여 영원토록 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²²⁾라고 하여 ‘上帝’, ‘聖神’이라 썼다. 1882년본 역시 ‘上帝’, ‘聖神’을 그대로 썼지만, 1887년본에서는 이들 각각을 ‘眞神’과 ‘聖靈’으로 썼다.

사실 신명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따른 의견 대립은 중국 개신교 선교역사에서 중요하고도 격렬히 이루어졌던 내용이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통일된 번역 성경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런던 선교회, 미국 공리회, 미국 회중 선교부, 모리슨 교육회 등이 연합하여 성경을 번역하기로 하고 1843년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852년에 『대표역본 신약전서』(The Delegates' Version)가 출간된다. 하지만 문체와 신명 문제에서 선교회 간의 의견이 갈렸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들은 신명으로 주로 上帝를 썼지만, 미국 출신 선교사들은 이것에 반발하며 神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국 『대표역본 구약전서』 번역작업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제외한 선교사들이 런던 선교사 공회의 지원을 받아 1854년에 『대표역본 구약전서』를 번역한다. 그렇게 하여 대표역본 성경이 완성된다. 이 성경은 上帝와 聖神을 사용한다. 반면 위

21) 이고은, 앞의 논문, 42쪽.

22) 楊格非, 『德慧入門』, 中國聖教書會, 1887, “然而人雖有罪, 上帝之仁更顯。卽降生聖子耶穌, 代人贖罪, 又賜聖神感化人心, 使之重活天良, 得享眞福於無窮也。”

원회에서 갈라져 나온 메드허스트, 스트로낙, 밀른 등의 미국 선교사들은 따로 성경을 번역하여 1862년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출간하는데, 여기에서는 神과 聖靈을 채택한다.²³⁾

그리피스 존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 초간본과 1882년본에서 上帝-聖神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1887년판에서 上帝-聖神 대신 眞神-聖靈으로 신명이 변경된 이유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파념의 영향력이 강했던 중국성교서회에서 이 책이 재발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1880년경 한구성교서국에서 발행된 책을 타 지역 서회에서 가져다 재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인쇄된 책을 옮기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서회에서 재인쇄(재발행)하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⁴⁾

또 중국성교서회에서 이 책을 재발행한 것은 미국계 선교회에서도 이 책의 효용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도 된다. 물론 ‘神’이 아니라 ‘眞神’을 사용한 판본은 오직 이것뿐이고 후대 판본에서는 ‘神’을 사용한다. 미국계 선교사들이 ‘眞神’을 받아들이지 않고 ‘神’을 사용하기 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1887년판의 눈에 띄는 변화는 14장 「성경의 요지를 설명하다(論聖經大旨)」부분을 대폭 보강한 것이다. 이 부분은 초간본 간행 이래 1882년본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몇몇 글자만 바꾸었던 장이었다. 이 장은, 전체 성경의 정확성과 권위 등에 대한 개론을 설명한 후 구약을 설명하고 이어서 신약을 설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앞 두 부분은 이전 판본들과 거의 차이가 없고 한두 글자 단위로 약간 수정한 것만 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신약을 설명하는 세 번째 부분이다. 이 대목 서술을 바꾸어서 기존의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빠진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대폭 보강하였다.

1887년판의 해당 부분을 보이면 이전 판에서는 없다가 새로 추가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간본&1882년본: 이 책은 예수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사도들이 전도

23) 유우빈 저, 구향화·이환진 역,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성경원문연구』 37, 대한성서공회 원문연구소, 2015, 279-276쪽; 이효림, 「20세기 이전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와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한국기독교학회, 2019, 23-26쪽 등 참고.

24) J.W. Brewer, "Report of the Hankow Tract Society for the Year 1880," *Chinese Recorder*, vol.12, no.2, 1881, p.103.

하며 말한 것과 행한 것의 대략을 들어서 기록하였으므로 「사도행전」이라 한다. 그 다음 총 22권은 사도 바울(Paul), 베드로(Peter), 야고보(James), 요한(John), 유다(Jude) 다섯 사람이 성신에게 감화되어 각 교회에 전한 편지이다. 비록 본래는 그 당시 교회에게 전한 것이지만 또한 천하 만세의 예수교회에 전한 것이기도 하다.²⁵⁾

○ 1887년본: 이 책은 예수의 제자 누가가 복음서를 이어서 쓴 책이다. 누가복음은 주께서 강생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방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며 말하고 행한 것을 대략 기록하였으므로 사도행전이라고 한다. 그중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가 다니며 전도한 일을 기록한 것이 매우 많고, 그 나머지 사도들이 다른 곳에 전도한 것도 미루어 알 수 있게 했다. 책의 대지는 곧 성령께서 구주의 허락하신 대로 강림하였고, 사도들이 성령에 크게 감화되어 의연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거룩한 교회가 유대에서부터 이방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기록했다. 아울러 사도와 그 문도들이 늘 핍박을 받았으나 거룩한 가르침을 상고하여 크게 일어나 구원 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을 기록했다. 모든 책에 기록된 일이 구주께서 승천하실 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수도 로마에 갈 때까지 약 30년까지이다. 제5권 이하는 총 22권이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다섯 사람이 성령에 감화되어 각 교회에게 알린 것이다. 어떤 것은 도를 전하는 자에게 쓴 편지요, 어떤 것은 도를 믿는 자에게 쓴 편지이다. 이 편지의 대지는 주를 믿는 도의 오묘한 뜻을 밝히고 성도의 마음을 밝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또 가르침의 규범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다. 또 많은 말로 성도들을 권하여 진리를 도타이 믿게 하고 여러 덕과 지혜를 날마다 구하여 나아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거짓 사도의 이단을 삼가 막고 세속의 사악한 행실을 멀리하며, 핍박의 고난을 견뎌내고 항상 변치 않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22권이 비록 본래 그 시절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천하 만세의 예수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기도 하다.²⁶⁾

25) 楊格非, 『德慧入門』, 초간본과 1882년본, “此卷乃耶穌門徒路加所著, 舉使徒傳道, 所言所行之略而記之, 故名曰使徒行傳. 以下凡二十二卷, 乃使徒保羅, 彼得, 雅各, 約翰, 猶大, 五人感於聖神, 達知各教會之書, 雖本達知彼時之教會, 然亦達知天下萬世之耶穌聖教會也.”

26) 楊格非, 『德慧入門』, 1887년본, “此卷乃耶穌門徒路加繼其福音而著之書也. 路加福音, 乃記主降生以至升天之事, 行傳則舉使徒四方傳道立教, 所言所行之略而記之, 故名謂使徒行傳. 其中記彼得保羅二使徒行傳之事甚多, 而其餘之使徒傳教於他處者, 可類推矣. 書中大旨, 卽聖靈應教主所許而降臨, 使徒大感於聖靈, 毅然傳道立教, 聖教會傳自猶太以至異邦, 並記使徒與門徒常受逼迫, 而究之聖教大興, 得救者日有所增焉. 全書所載之事, 自教主升天, 至使徒保羅被囚於羅馬京城, 約共三十年. 第五卷以下, 計二十二卷, 使徒保羅, 彼得, 雅各, 約翰, 猶大, 五人感於聖靈, 達知各教

1887년본에서 많이 추가한 내용은 신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인용한 부분 바로 앞부분에도 여러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제시하지 못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이전 본에서도 사복음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여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주요 대상독자가 누구인지, 그들에 맞추어 어떤 점이 강조되도록 서술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넣었다. 그 뒤에 추가로 제시된 내용은 위에 밑줄로 표시하며 인용한 것과 같다. 이전 본에서는 복음서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록하였는데, 1887년에 서야 비로소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히 하여 신약성경에 대한 대략을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대표역본』 성경이 중국 유교 경서에서 사용하는 문언문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그리피스 존은 보다 쉬운 문체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도 했다. 『대표역본』과 『북경관화역본』 등을 참고하여 1885년에 펴낸 천문리역본 『楊格非文理譯本 新約』이 그것이다. 즉 중국 유교 경서에 사용하는 문언문으로 쓰인 深文理譯本이 너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조금 더 쉬운, 통속적인 문체로 써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을 淺文理譯本이라 한다. 그리피스 존은 이 천문리체로 신약을 번역한 데 이어 1886년에 「시편」, 「잠언」을 펴내고 1889년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출간하였다.²⁷⁾ 그리피스 존이 1887년본 『덕혜입문』에서 특히 신약성경 설명 부분을 대폭 보강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했던 성경 번역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1885년에 신약번역을 마치고 출간한 것과 『덕혜입문』의 해당 내용을 보강, 정리한 것은 시기상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글자나 구절 단위의 수정이 상당히 많은 것이 1887년본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1882년본도 초간본을 글자나 구절 단위로 고친 곳이 여럿 있다. 하지만 1887년본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책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 있어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단락 단위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는 수준에서 글자나 구절을 가감하거나 표현 순서에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어 「서」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서술 순서 수정의 예이다. 한문 표현을 비교해야 명확하므로 번역문과 원문을 나란히 제시한다.

會, 或傳道者, 或信道者之書也. 此書大旨, 欲發明主道之奧義, 光照堅固聖徒之心, 且立教規, 使衆知所遵行, 又用多言勸勉聖徒篤信眞道, 於諸德慧日求進益, 謹防僞師之異端, 遠避世俗之邪行, 忍受逼迫之苦難, 恆久不變, 以得永生也. 此二十二卷, 雖本達知彼時教會中人, 然亦達知天下萬世之耶穌聖教會中人也.”

27) 이효립, 앞의 논문, 27-28쪽 참고.

○ 초간본(1879): 서양 사람이 중국에 와서 살면서 이 도를 전파하는데, 본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큰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와 생사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모두가 중국인과 중국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다.

西人旅居中國, 播揚此道, 無非篤遠離本國, 險歷重洋, 置生死於度外, 凡以爲振興人國, 及俾衆脫罪而得永生也.

○ 1882년본: 서양 사람이 중국에 와서 살면서 이 도를 전파하는 것은 **도타운 동포의 사랑이 아님이 없다**. 본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큰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와 생사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모두가 중국인과 중국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다.

西人旅居中國, 播揚此道, 無非篤同胞之愛. 遠離本國, 險歷重洋, 置生死於度外, 凡以爲振興人國, 及俾衆脫罪而得永生也.

○ 1887년본: 서양 사람이 **본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큰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와서 살면서 이 도를 전파하는 것은, 도타운 동포의 사랑으로** 중국인과 중국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님이 없다.

西人遠離本國, 險歷重洋, 置生死於度外, 旅居中國, 播揚此道, 無非篤同胞之愛, 振興人國, 俾衆脫罪而得永生也.

1882년본은 초간본에서 ‘同胞之愛’라는 네 글자만 추가했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 1887년본은 1882년본에서 추가한 ‘동포지에’라는 글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 문장의 순서를 수정했다. 1882년본의 문장에서 뒷구절 ‘遠離本國, 險歷重洋, 置生死於度外’를 앞으로 끌어오고, 앞구절 ‘旅居中國, 播揚此道, 無非篤同胞之愛’를 뒤로 빼는 방식으로 문장을 고쳤다. 글자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고, 표현의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앞의 것을 받는 표현인 ‘凡以爲…及’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1887년판의 서술은 이후 모든 판에 동일하게 등장한다. 즉 본문이 확정된 것이다.

요컨대 1887년판의 특징은 중국성교서회에서 재발행되면서 신명으로 진신,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성경 요지를 설명한 15장에 대한 대폭 추가가 이루어진 점이다. 덧붙여 글자 수준의 수정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이 판본의 특징이다.

V. 이후 판본 양상: 신명 종류별 다양한 출간

1887년본 이후에도 『덕혜입문』은 계속 출간되어 활용되었다. 남아 있는 책들을 볼 때, 『덕혜입문』의 인기와 수요는 계속 이어졌음이 확인된다. 논자가 직접 확인한 판본만 언급해 보더라도 1890, 1892, 1897, 1907, 1908, 1909, 1912년판²⁸⁾이 있었다. 이 책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고, 전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들 판본들은 1887년판과 비교할 때 내용상 수정 없이 모두 같다. 전체 책 중에 한두 글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확히 일치한다. 이후에 나온 판과 1887년판을 비교해 보면 이후 판에서는 글자 수준에서조차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 앞서 1887년본의 특징 중 하나가 단어나 구절 수준의 수정이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 이후 판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 1887년에 와서 비로소 서술내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7년 이후로 서술내용은 확정되고 오직 神名만 다른 여러 판본이 나온다.

우선 서술내용이 확정되었다는 부분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장서각 소장 1887년판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소장 1897년판을 비교해 보았더니 신명만 다를 뿐 서술내용의 차이 없이 똑같았다. 다만 한 행당 글자 수는 다른 것으로 보아 판형을 다시 구성하여 찍어낸 판본인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내용은 똑같다.

또 1887년 장서각 소장본과 1907년 한양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을 비교한 결과 오직 한 글자의 차이가 있고, 또 오직 한 구에서 글자는 같은데 서술 순서만 바꾼 예가 있을 뿐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 다른 본들과 마찬가지로 신명만 다를 뿐이었다. 판형 구성, 한 행당 글자 수까지 모두 일치하였다. 글자가 다른 부분은 이것이다.

(예 1)

1887 4a 7행 今察世間萬類, 知是六十餘原質配合而成.²⁹⁾

1907 5a 4행 今察世間萬類, 知係是六十餘原質配合而成.

28) 중국 국가도서관에는 1912년 華北書會에서 발행한 『덕혜입문』이 있다.

29) 楊格非, 「略論萬物之原質以彰上帝之經綸」, 『德慧入門』, 中國聖教書會, 1887.

〈예 2〉

1887년 20a 3행 復生之身, 乃從此質而出, 故復生之身與本身, 非有二身也.³⁰⁾

1907 26a 1행 復生之身, 乃從此質而出, 故復生之本身與身, 非有二身也.

〈예 1〉에서 보이는 대로, 두 판본은 1907년본에 ‘係’라는 한 글자가 추가되었을 뿐 해석은 똑같이 “이제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60여 가지 원소가 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된다. 또 〈예 2〉에서 보면 身與本身을 1907년본에서는 本身與身이라고 썼으니 같은 글자를 배열만 달리한 구절이다. 번역하면 “다시 사는 몸은 곧 이 형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사는 몸과 본래 몸은 두 몸이 아니다.”로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것은 오히려 1887년과 다르게 배열한 1907년판이 오히려 더 어색한 부분이다. 이외의 모든 내용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1887년판 이후로는 내용과 표현이 고정된다.

1887년판 이후에 나온 판본들은 인쇄처가 다양하고 신명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여러 번 인쇄되었다. 각 판본의 인쇄판과 인쇄소 및 신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덕혜입문』 판본별 발행, 인쇄 주체 표시 및 신명 사용 현황

년도	발행주체	인쇄판	사용한 신명
1879		上海美華書館印	上帝관(聖神)
1882	漢口聖教書局印發		上帝관(聖神)
188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鉛板	眞神관(聖靈)
1890	華北書會印發	福州美華書局活版	上帝관(聖神)
189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文華書館擺印	天主관(聖靈)-연세대학교 소장 上帝관(聖神)-국회도서관 소장
1907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擺印	神관(聖靈)
1908	華北書會印發	上海商務印書館代印	上帝관(聖神)
1909	中國聖教書會印發	上海美華書館擺印	神관(聖靈)

〈표 2〉에서처럼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던 그리피스 존은 신명으로 상제를 사용하여 초간본을 내었고 이것이 1882년본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중국성 교사회에서 발행된 1887년본에서 ‘眞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는, 어

30) 楊格非, 「復生之道」, 『德慧入門』, 中國聖教書會, 1887.

는 때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덕혜입문』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쓰면서 신명만 다르게 쓰는 판을 각각 발행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선교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 소위 신명논쟁은 매우 격렬하고도 양보 없이 진행되었다. 영국 등의 선교사와 미국 측 선교사가 신명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져서 성경조차 '신판'과 '상제판'을 따로 찍기도 했다. 그런 양상이 『덕혜입문』에서도 보인다.

발행기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성교서회, 화북서회, 한구성교서국, 상해미화서관, 상해문화서관, 상해상무인서관, 북주미화서관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책마다 어느 인판을 사용하였고 발행주체가 누구인가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는 점이다. '擺印'이나 '代印', '鉛版', '活版'으로 표시된 기관은 인쇄판을 제공했다는 의미이고 발행주체는 印發로 표시된 기관이었던 듯하다.

이처럼 하나의 책이 다양한 곳에서 재발행된 양상은 중국 내 기독교출판기관의 연계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성교서회와 화북서회, 한구성교서국은 모두 영국 모회(RTS)의 후원을 받는 데다 비슷한 조직을 갖춘 지부(branch) 성격의 기관들이었으며, 상호 출판물 교류도 활발했다.³¹⁾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구성교서국에서 발행된 책을 타 지역 서회에서 가져다 재발행하면서 타지 서회의 위원회 성향에 따라 신명을 다르게 결정했을 것이다.

1887년본 이후부터는 내용이 모두 같고 소위 '神'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판과 '上帝'라는 용어를 채택한 판을 각각 발행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天主'라는 용어를 채택한 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전에 발행한 '眞神'판과 함께 총 네 가지 종류의 신명을 담은 판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은 제삼위 신명과 함께 바뀐다. 상제판은 聖神으로 쓰고 나머지는 聖靈을 썼다. 각 판본은 이런 두 신명만 바뀔 뿐 내용은 똑같다.

판본별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본과 1908년본은 동일하게 화북서회(North China Tract Society)에서 발행한 것이고 모두 상제-성신을 신명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둘의 판형이 달라 행당 글자 수 등이 다르다. 각기 다른 인쇄판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북서회는 미국 회중교회 선교회 소속 헨리 블로젯(Henry Blodget, 1825~1903)을 회장으로 하

31) 이고은, 앞의 논문, 45-46쪽 참고.

여 설립되었지만,³²⁾ 당시 영국과 미국 출신 선교사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분위기였으므로³³⁾ 굳이 신명을 ‘神’으로 바꾸어 인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상제판 원본 그대로 가져다가 재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판은 매우 특별하다. 上海文華書館擺印을 활용하여 中國聖教書會가 발행한 것은 똑같은데 실제 남아 있는 판본을 살펴보니 두 가지였다. 연세대학교 소장 1897년본은 천주-성령을 사용하고 있었고,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897년본은 상제-성신을 사용하였다. 출판사, 인쇄판, 발행년도도 모두 똑같다. 오직 상제를 쓴 부분에 천주를 쓰고, 천주를 쓴 부분에 상제를 쓰는 방식으로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출판사에서 같은 해에 두 가지 판을 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기관별 견해 차이로 판본을 달리한다면 한 기관에서 하나의 판본만 나와야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같은 해에 두 가지 판본을 출간했다는 사실은 기관 차이를 넘어선다. 상업적 목적으로 다양한 판본을 준비했거나 혹은 다양한 교단의 요구를 한 출판사에서 동시에 받아들여 출간했다는 것이 된다. 혹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거의 모든 교파 소속 선교사들이 중국성교서회 이사회에 참여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신명으로 ‘天主’판이 발견된 것은 드문 현상이다. 신판-상제판은 성경판본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천주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버든-블로젯 역 신약』(1889)을 함께 고려할 만하다. 존 버든(John S. Burdon, 1826~1907)은 영국 출신 선교사로 1874~1897년 동안 홍콩 빅토리아 성공회 3대 주교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헨리 블로젯은 1854년에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소속 선교사로 와서 활동했는데, 이들 두 사람이 함께 『천문리역 신약성경』을 福州에서 발행하였다. 이 역본에서 신명으로 ‘天主-聖靈’을 사용하였다.³⁴⁾ 신명 논쟁의 주류는 상제판-신판이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천주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존 버든이 성공회 주교였던 점을 고려하고, 성공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주’를 신명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천주-성령’을 신명으로 쓴 『덕혜입문』을 발행한 것은 성공회를 고려한 판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32) 이고은, 앞의 논문, 44쪽.

33) Religious Tract Society, *Annual Report of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89, p.161.

34) 이효림, 앞의 논문, 28-29쪽 참고.

1907년판과 1909년판은 '신-성령'을 사용하였다. 신판은 版心에 '神'이라고 적어두어서 이것이 '상제판'이 아니라 '신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그림 2 참고).

또 특이한 것은 '신'자 앞에 한 글자씩 비어 있다. 신판이나 상제판이나 내용은 같은데 신명만 다르므로 출판사에서는 판형은 그대로 둔 채 그 자리에 '상제'를 넣거나 '신'을 넣거나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령'과 '성신'은 똑같이 두 글자이지만, '상제'와 '신'은 글자 수가 달라 판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한 글자를 빈칸으로 두든지 해야 한다. 실제로는 후자의 방식을 이용했다.

이 두 판, 즉 1907년판과 1909년판은 판형이 똑같다. 같은 판을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목차 부분만 보면 이 둘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1907년 판은 목차부터 본문까지 모두 '神'자 앞에 한 글자씩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참고). '상제'가 들어 있던 두 글자 자리에 한 글자만 넣다 보니 생긴 일이다. 1909년판은 목차에서는 '神'자 위에 빈칸이 없지만 본문에는 1907년판과 마찬가지로 빈칸이 있다. 목차만 새로 인쇄판을 만들고 본문은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다룬 것 이외에 다른 판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887년 이후에 나온 것이면 내용은 모두 같고 신명만 다르다.

요컨대 1887년판 이후의 『덕혜입문』은 내용과 표현이 고정되고 신명만 달리하여 上帝, 神, 天主판으로 각기 출판하여 여러 해 동안 여러 곳에서 전도용으로 쓰였다. 상제판과 신판, 그리고 천주판까지 따로 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되고, 어느 선교회나 어느 성향의 선교사에게도 이 책이 전도에 유용한 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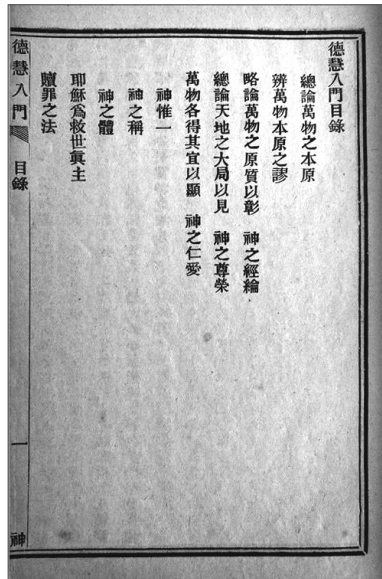


그림 2 1907년 神판. 한양대학교 소장

VI.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덕혜입문』의 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책은 1879년 9월 무창에서 열릴 科擧에서 문인들에게 대량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기획서로서, 특별히 영국의 런던 성교서회에서 특별자금을 받아 출판하여 전국에 배포한 한문서학서이다. 초간본은 17장으로 구성하였으나, 1882년본에서는 한 장을 추가하여 총 18장으로 확장했고,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4장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1887년본에서는 성경의 대지를 설명한 15장을 대폭 보강하고, 글자나 구문 수준의 수정도 상당히 많이 하였다. 그 이후로는 오직 신명을上帝나 神이나 天主로 했다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판본이 여럿 출간되어 널리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 국내에 전파되어 널리 쓰였을 뿐 아니라 1915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책을 한글로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이때 어떤 판본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한글번역본과 한문본은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가졌는지도 고찰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할 내용이 많아 한 논문으로 실기 어렵기 때문에 곧 별도의 논문으로 구성하려 한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 楊格非, 『德慧入門』 1879년판,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안도서관 소장본.
 楊格非, 『德慧入門』 1882년판, 호주국립도서관 소장본.
 楊格非, 『德慧入門』 1887년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楊格非, 『德慧入門』 1897년판,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소장본, 연세대학교도서관 소장본.
 楊格非, 『德慧入門』 1907년판, 한양대학교도서관 소장본.

○ 논저

- 그리피스 존 저, 김현우·서신혜·이고은 역, 『덕혜입문』, 동서지행포럼, 2022.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덕혜입문(德慧入門)』(1915)」,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3, 한국기독교문화연구, 2020.
 오주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문서로 소개된 『덕혜입문(德慧入門)』에 나타난 교리사적 연구」, 『동서신학』 3권 1호, 동서신학연구소, 2021.
 옥성득, 『한국 기독교 형성사: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1876-1910』, 새물결플러스, 2020.
 요우빈 저, 구향화·이환진 역,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성경원문연구』 37, 대한성서공회 원문연구소, 2015.
 이고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이효림, 「20세기 이전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와 의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한국기독교학회, 2019.
 임다영, 「《스민필지》와 《덕혜입문》의 한자음 표기 연구」, 『국어학』 102, 국어학회, 2022.

The Annual Report of the Religious Tract Society,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9.

Brewer, J.W., "Hankow Tract Society," *Chinese Recorder*, vol.11, no.4, 1880.

Brewer, J.W., "Report of the Hankow Tract Society for the Year 1880," *Chinese Recorder*, vol.12, no.2, 1881.

Kenmure, Alexander, "The Ten Best Christian Books in China," *The Chinese Recorder*, July 1893.

Lai, John, *Negotiating Religious Gaps: The Enterprise of Translating Christian Tracts by Protestant Missionaries in Nineteenth-Century China*, Routledge, 2012.

Oak, Sungdeuk, "Chinese Protestant Literature and Early Korean Protestantism," Robert E. Buswell and Timothy S. Lee eds., *Christianity i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Diverse Editions of 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by Griffith John

Lee, Go-eun
Seo, Shin-hye

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德慧入門) is a book on Protestantism written for Confucian readers by Griffith John (1831-1912), a member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who served in central China. The book was widely distributed in both China and Korea, and often mentioned in history of the early Protestant churches in both countries. Although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is work, comparative analysis of its diverse editions, which is prerequisite for bibliographic research, is still needed. Thus this study focused on bibliographical analysis of various editions available.

Since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1879, the book has been continuously reprinted up to the 1920s a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content between the first and later editions. For example, the first edition originally consisted of 17 chapters, but in the 1882 edition, one chapter was added to make it 18 chapters, with detailed explanation on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In the 1887 edition, the term for the Christian God was changed to Zhenshen (眞神) and Ling (靈) and the chapter detailing the Bible was greatly reinforced. Since then, many editions we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contents of later edition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1887 edition, but the terms for God varied ranging from Shangdi, Shen, Zhenshen, to Tianzhu, reflecting the book's wide usage by diverse denominations. This research can help researchers who study 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select a proper edition in their study of Griffith John's thoughts and his works. Furthermore, it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study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work.

keywords

The Gate of Virtue and Wisdom, Griffith John, Books of Western learning, Christian literature, Central Chinese Religious Tract Society,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in Shanghai

